

지낸 일과 해야할 일

전 제 옥

(부속도서관장)

70년 5월에 도서관일을 맡아보게된 이래 이미 1년 7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도서관에 관한 여러가지 새로운 지식도 많이 배웠으나 아직도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실정이다. 지낸 일과 앞으로 해야할 일을 적어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대학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일반지식인들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도서관하면 누구나 대학의 심장부 내지는 지식의 공급처라고 인정하고 있는 듯하나 실제 도서관안에 들어서서 한가지 한가지 따져 들어가 보면 이것은 한갓 이상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은 너무도 이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기관이고 그 기관이 정상적으로 움직일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적절한 예산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한다. 즉 도서관에서는 예산과 사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도서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70년 5월 현재 전임 직원이 불과 28명인데 그 중에서 서무직을 빼면 사서직은 불과 10여명에 불과한 상태이다. 그리고 예산도 도서구입비는 320만원 정도였다.

이런 상태로 장서 63만여권을 유호하게 활용시킬 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믿거나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더우기 장서 63만권도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본인이 관할하던 1926년 부터 1945년 까지에 이미 55만권의 장서가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며 그로부터 해방된지 26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도서구입은 실로 부끄러워서 말을 잇기가 곤란할 정도이다. 해방후 증가된 도서수도 정확히 따지고 보면 그 3분의 2 가량이 기증본이고 도서관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일년에 1,000여권에 불과하다. 그러하니 나머지 것은 문

지 않고도 스스로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고도서비 외에도 학생들의 등록금 중에서 도서비로 일인당 300원씩 받았으나 이것은 그 대부분이 임시직원들의 급료로 충당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에는 부속도서관외에 각 단과대학과 대학원등에 모두 14개 분관이 있다. 이 분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도 25만여권에 이르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우선 외국의 일류대학의 도서관 예산은 어떠한가하고 하바드 대학과 동경대학등을 살펴보니 하바드대학은 연간 예산이 547만불로 거의 서울대학교 전체 예산액에 접근하고 있으며 동경대학 역시 일화로 4억원이 넘어 우리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였다. 유치원과 대학교의 예산차이 이상의 것임을 곧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GNP와 이들 부유한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깨닫고 비교상대를 국내로 돌려 국회도서관과 국립도서관에 대해 기본적 조사를 했다.

국회도서관은 창립한지도 얼마되지 않았으며 장서수도 불과 20여만권인데 총예산액은 1억 4천여만원이고 국립도서관은 장서수 45만권 정도인데 예산은 7천여만원 임을 알게 되었다.

이런 도서관이나 서울대학교 도서관이나 국가의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에는 조금도 차이가 있을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점이 가로놓여 있었다. 즉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20여년동안 거의 무반응상태로 방치되어 도서정책 부재를 말할 정도이었고 보니 단숨에 이 난관을 극복하기는 여간 힘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본부에도 사무국이 있어 예산을 취급하는 기관이 있으나 이곳에서는 상부지시에 의한 매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있어 어떤 부문이고 전년도 예산의 15% 이상은 올리지 못하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있다.

이런식으로 예산이 증가한다손 치드라도 그야말로 난쟁이 뽀뽀기도 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문교부나 경제기획원 당국과 교섭하는 길이 없지는 않으나 가는 곳마다 자체방위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어 외부에서 잠입하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여러가지로 궁리하던 끝에 요로에 있는 사람들과 서울대학교 동창들의 힘

을 얻어 작년도 예산으로 당초 요청했던 금액의 3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나 우선 800 만원을 도서비 순증으로 확보하고 보니 약간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아직도 갈길은 요원하고 전도는 암담할 따름이다.

여기에서 처음 배운것이 예산이란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절대로 늘지 못한다는 엄연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알면서도 대학에만 몸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압력을 가하기란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었다. 물론 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는데 예산뿐만 아니고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서직도 130 명가량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으나 보기 좋게 거부되고 말았다.

도서비예산 요청에서도 서울대학교 학생수를 대략 13,000 명으로 잡고 매인당 연간 4 권씩 신간을 구입한다면 52,000 권을 사들이게 되며 이런 계획이 20년 이상 지속되어야만 새로운 장서 100 만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구입비는 줄잡아 동서·양서를 합쳐서 평균 한권에 10 불로 치다면 연간 52 만불이니 그것만도 우리 돈으로는 2억이 넘는 대금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이 신간만 사들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단행본에 못지 않게 소중한 것이 학술잡지이다. 이 잡지 역시 69년에는 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한 것이 123 종정도 였으니 동경대학의 한 학과만도 못한 실정이다.

다행히도 금년들어 각 교수들의 열렬한 의견도 있고 대학당국과 문교부장관 이하 모든 관계자들의 열성있는 성원을 얻어 72년도 도서구입비로 4,700 여만원(원래는 5,100 만원이었으나 최종심의에서 삭감되었음)과 잡지 1,500 여종은 이미 발주가 그치었고 앞으로 공산진영 잡지·문헌까지 합쳐서 예산이외 약 3,010 만원 정도를 추가배정을 받은 셈이다. 또한 인원증가도 사서직 28 명, 고용직 22 명, 합쳐 50 명의 신규 T.O. 가 배정되었다. 더우기 이 신규 T.O. 가 중앙도서관에 배속시키도록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은 종합화를 위한 진 일보한 일이라 하겠다.

이로써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약간 한숨돌린 듯 하나 앞으로 해야할 일들은 너무도 많은 것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도서비는 적어도 앞으로 5년

이내에 6억원 정도가 되어야 하며 이 목표액을 달성시키려면 매년 예산이 100%씩 증가되어야만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종합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새 캠퍼스는 중앙도서관 중심으로 건물을 배치한다. 따라서 도서관도 제모습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나라 일류 대학에 못지 않는 장서와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렇기 위해서는 사서직도 매년 대폭 증가시켜 새 캠퍼스로 옮길때까지 정원 400명은 최소한 확보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흔히 장서 63만권이라 하고 있지만 실용 가능한 책수는 불과 37만권이다. 앞으로 적어도 10년 내에 이 장서 수를 200만권 정도로 확보해야 되며 이와 때를 맞추어 학술잡지도 5만 내지 6만 정도는 구입해야 된다

그외의 중요한 사업으로는 불용도서 폐기처분과 제본사업을 들 수 있다. 앞으로 불용도서는 캠퍼스를 옮기기 전까지 과감하게 처리해야 하며 제본사업도 본격적으로 벌려야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시설면으로는 제록스, 마이크로필름 사업도 이미 도입된 기재가 노후화되어 성능이 약화되었으므로 앞으로 최신 고성능 기기·기재를 도입하고 즉석에서 복사할 수 있고, 또는 제본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될 것이다.

우리도서관하면 누구나 규장각 귀중도서를 연상할 만큼 규장각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으나 사실은 규장각도서를 연구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해방후 26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겨우 「조선총독부」라는 도서번호표를 「서울대학교 도서관」으로 바꿀 정도이고, 71년도에 하바드 엔칭학회의 도움으로 규장각 중국본의 목록을 72년 여름까지 출판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72년도에 하바드엔칭학회의 도움을 얻어 계속 귀중본의 목록작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문교부에서도 72년도 학술연구조성비 중에서 상당액을 규장각도서 정리비로 충당시킬 예정으로 되어있다.

요즘 들은바에 의하면 아세아재단에서도 서울대학교 종합화계획을 재정면에서 적극 돕기로 간부간에서 합의했으며 72년초 韓총장이 방미할때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서울대학교에는 거의 모든 학문의 전공분야를 망라하고 있고 그 수는 겨

의 100개 학과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도 유감된 일은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이다. 작년에 이미 대학원에 도서관학과 설치를 예비적으로 협의한바 있으나 대학교에 학사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석사과정 설치는 학칙이 허용치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시일이 지날수록 전문직 사서들의 요청이 증가됨으로써 현재 기성 사서전문직들의 후계자 양성도 벌써 때가 늦은 감이 든다.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늦어도 72년도 중에 모든 계획이 달성되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도서관학 전공학과가 설치되어 73학년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어야만 될 것이다. 이 계획은 문교부 당국자와 교섭한 바 있는데 가능성이 엿보이며 대학당국과 대학원의 협조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므로 과히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이 실현되면 2년후에는 석사학위를 가진 자격을 구비한 사서직을 도서관에서 채용할 수 있게되며 이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해외로 파견하여 현대식 도서관 운영방법과 컴퓨터에 의한 도서처리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배워서 우리나라에도 시급히 이런 현대식 도서관 운영방식을 도입해야만 다른 선진국의 도서관과 맞서게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도서관이 전에 비하면 약간 햇빛을 보게된 것도 지금까지 도서관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일해주신 전임관장 여러 선생들의 노고와 도서관에서 장기근무하면서 어려운 여건을 이겨낸 전문사서직 그 밖에 도서관직원 일동의 성의와 노력에 의해서다. 이들의 노고에 치하하는 바이다.

앞으로 도서관이 잘 육성되고 발전되려면 도서관직원들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한 소중한 것은 예산을 취급하는 당국자와 대학당국자들이 도서관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도서관이 지닌 중대한 사명을 진실로 깨닫게 되어야만, 모든 계획이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는 교수나 학생들이 논문을 작성하거나 연구를 하기위해서 찾는 모든 책은 중앙도서관에 가면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가지 면에서 발전되기를 바라며, 도서관 본래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요로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관심있는 인사들의 적극 협조를 바라는 바이다.